

# 무안국제공항 노선 유치·증편 총력

### 전남도, 올 이용객 30만명 목표 국내외 항공사 홍보 활동 편의 시설 확충... 국토부와 제주노선 지역 안배 슬롯 등 논의

전남도가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목표를 30만명으로 정하고 국제 정기노선 유치, 운항 노선 증편 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18년 이용객 50만명을 넘어선 뒤, 2019년 89만명으로 정점을 달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잠정 폐쇄까지 됐다가 지난 2022년 7월 운항을 재개했다.

전남도는 18일 "올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 목표를 30만 명으로 정하고 국제 정기노선 유치와 운항 노선 증편을 위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항공사와 총대리점까지 홍보·유치 활동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노선 유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국제 정기선 유치를 위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

기 운항 재정손실 보전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뿐만 아니라 김영록 전남지사가 직접 해외 유치활동에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무안국제공항은 중국 장가계,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나트랑·달랏·다낭, 일본 기타큐슈 등 총 4개국 6개 노선이 운항하고 있다. 7월 중순엔 일본 항공사인 스타플라이어에서 무안국제공항-기타큐슈-하네다를 운항 예정으로 운항 편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또 국내 항공사 정기선 유치 활동 및 동남아 3개국 무사증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서서히 이용객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이용객은 약 4만6000여 명으로 저조했으나 올 들어 6월까지 이

용객이 10만여 명에 이르는 등 국제선 이용객만 보면 제주국제공항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남도는 항공사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적극적인 신규 노선 유치와 국내선 제주 노선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지역 안배 슬롯도 국토교통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

이밖에 공항 편의·기반시설 확충으로 관리동 신축과 여객청사 정비를 지난해 말 완료했고,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국제 중장거리 노선 취항이 가능한 활주로 연장 사업도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도청 및 소속기관 임직원들에게 무안국제공항 이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이런 이용문화가 도민들에게까지 확산되길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2029년 이후 완료 예정인 새만금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기 전에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 '광주 실감콘텐츠큐브' 인기 폭발

### 900억 들어 개관 8개월째... 영화 촬영 등 스튜디오 예약률 100%



실감콘텐츠 제작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광주시 제공)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wangju Content Cube-GCC)가 본격 가동되면서 영화 촬영 등을 위한 스튜디오 예약이 폭 들어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GCC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900여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광주 남구 송암산단에 개관했다. 특히 30m 대형 발광다이오드 월, 시각특수효과와 동시 합성 시스템 등을 갖춘 실감 촬영 스튜디오와 융복합 스튜디오는 수도권 최첨단 시설에도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분장실, 레지던스까지 한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광주 첨단영상 제작센터

(CGI)에서 영상 후반작업도 가능하다. 하반기에 만 15건 영화 촬영, 공연 제작 일정이 잡혀 스튜디오 예약률은 100%를 채웠다.

생존게임을 소재로 하는 드라마 '밤이 되었습니다', 미디어아트 융합 클래식 공연인 '아르카시엘 콘서트'가 진행된다. 확장 현실(XR) 무대를 활용해 전통 검무·현대무용을 결합한 민속예술공연 콘텐츠, 상업영화도 촬영·제작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GCC의 첨단기술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들이 광주 첨단영상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SW미래채움사업 강사 발대식 18일 오후 광주 실감콘텐츠 큐브에서 열린 SW미래채움사업 강사 발대식에서 교육 수요증 및 강사증을 수령한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제공)

# 광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추경 209억 삭감

### 시의회 '행정 소홀' 지적...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비용 1억원도

광주시의회가 부실한 원가 산정과 경영평가가 지적된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금 중 209억원을 삭감했다.

1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남 광주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418억원 중 50%인 209억원을 삭감했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가 매년 1천억원 이상의

협상이 이뤄졌고 이후 코로나19로 운송수익이 줄고 운영비가 늘어 협상이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광주시는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으며 2019년 733억원, 2020년 1189억원, 2021년 1221억원, 지난해 1393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광주 인공지능(AI) 기업 기술 활용 시민 체감 및 도시문제 해결 솔루션 개발 지원비용 1억원과 전문예술극장 조성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5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광주시 총 예산은 기정예산 7조2318억원보다 3.9% 늘어난 7조5105억원이 될 전망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정철 도의원 임시회 업무보고

정철(민주·장성 1)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제 373회 임시회 기간 진행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의 전문직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직위제도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직이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 근무하도록 해 업무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현재 31개의 전문직위 중 21개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직위는 공식



으로 남겨놓고 있다.

정 의원은 "6개월마다 전문직위 수요조사를 해도 선정 인원이 없으면 공식으로 남는데 이러한 상태가 몇 년째 이어지는 직위도 있다"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귀농·귀촌 업무는 전남의 중점 사업인데 해당 업무를 맡아할 2개의 전문직위는 공식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문직위제도 운영 개선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지방정가 라운지

# "유명무실한 전남도 전문직위제 개선 필요"

## 정철 도의원 임시회 업무보고

정철(민주·장성 1)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제 373회 임시회 기간 진행된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전남도의 전문직위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직위제도는 공무원의 순환보직 단점을 보완하고 전문직이 업무의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관을 선발, 근무하도록 해 업무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전남도는 그러나 현재 31개의 전문직위 중 21개만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10개 직위는 공식



인한 농·어업 시설물 파손과 침수, 그리고 폭염에 의한 가축 고온 스트레스, 시설 원예작물 고사, 양식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농·어업분야는 기온변화에 따라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철저한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호우·폭염 농·어업인 피해 대비책 필요"

## 신익준 도의원 임시회 업무보고

신익준(민주·완도 2) 전남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 373회 임시회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에서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7-8월 강수량과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확률이 각각 40%로 전망한다는 기상청 예보를 고려하면 우리 전남지역도 집중호우로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겠습니다.

보험사기 ZERO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